

시연施連칼럼

시조 태사공이 불었던 옥적(玉笛)은 미국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 있다?



권오신 칼럼니스트, 좌원공파회장

시조(始祖) 태사공(太師公)이 몸에 지녔던 귀한 유품이자 국보급 이상의 가치를 지닌 신라(新羅) 황옥 피리(玉笛)가 한국전쟁 때 미국으로 반출, 현재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 소장 된 것으로 알려졌나? 1945년 대한민국(大韓民國) 정부 수립 이후 해외에서 소장된 문화재 가운데 최대 건이어서 반드시 추적해 볼 만하다.

이같은 사실은 1980년대 중반 안동권씨 대구종친회가 주관한 보화 강화 초청 강사였던 대구출신 권 목사(牧師, 생존시 80살 후 반으로 추정)가 “미국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에서 직접 보고 감동했다”는 증언에서 전해지게 됐다. 이 강좌에서 앞뒤로 강의에 나선 권오훈(權五焄) 대중회 문헌편찬위원장 증언에 따르면 “대구종친회 소속 회원들이 증언을 같이 들었으며 강의장 곳곳에서 박수를 치고 환호성이 터져 나오는 등 분위기가 마치 능동제사에서 신라(新羅) 피리 소리를 직접 들은 것 같이 들뜬 보화 강화가 되었다”는 것.

권 목사가 시카고 자연사 박물관 순회 전시회에서 본 신라 피리는 “누른 까가 나고 피리 앞쪽에 꽃 수실이 달렸으며 옥적(玉笛) 영어 해설란에 安東權氏 시조 권행이 불었던 피리”라고 적혀 있었다고 한다.

대구에서 일곱 살 때 미국 시카고로 건너가 양부모 가정에서 성장한 권 목사는 50대부터 고국을 드나들었으며 미국 교계 생활 때도 보화에 각별한 관심이 있어 생부(生父)의 가계도를 정확하게 알고 한국 역사 지식도 수준급이었다고 한다. 권 목사는 7살 때부터 미국의 양부모 가정에서 성장하고 영어를 모국어보다 더 잘 구사한 재원이어서 박물관 측이 설명한 영어 안내판을 이해하고 메모한 사실이 신빙성을 높였다.

한국전쟁이 나기 전 능동 향사 날엔 태사묘 보물각에 보관된 신라(新羅) 옥적(玉笛)을 가져와 누대(樓臺)에서 불었다는 가정(家兒)들의 전언으로 미루어보면 피리가 없어진 시기와 권 목사의 미국 생활이 일치한다.

향사 날 누대에 올라 피리를 불었다는 얘기는 수도 없이 들었다. 따라서 권 목사의 생존 여부를 먼저 확인하고 문화재 반환단체의 도움을 얻는다면 박물관 소장 유품을 추적은 어렵지 않을 것 같다. 문화재 반환단체의 도움을 얻어 대중회(大宗會) 차원에서 외교 경로를 통해 미국 시카고 박물관(博物館)에서의 신라 피리 소재를 먼저 확인한 후, 다음 단계로 한국 운동을 벌이는 절차를 밟는 등 문화재 반환운동 단체와 정부의 도움을 얻는 게 첫걸음이다.

신라(新羅) 피리는 현존 신라(新羅) 유물로는 유일하게 남은 초국보급 문화재다. 또 일본(日本)으로 유출된 것으로 의심되는 시조 태사공 영정도 찾아야 한다. 신라방(新羅坊)에서 만들어진 신라(新羅) 종이에 그린 시조(始祖)의 영정을, 그리고 극초사로 써진 율시 50자의 글체는 라발(羅末) 리초(麗初) 귀족들이 휘갈겨 쓴 글씨체다. 이 역시 경주불국사(慶州佛國寺) 석가탑(釋迦塔) 사리함(舍利函)에서 나온 다라니경 이래 최대 발견이다.

신라(新羅) 옥적(玉笛)과 영정(影幀)은 바로 국보에 지정될 최고의 가치를 지녔으며 320여 한국의 성씨(한문 겸용) 가운데 안동권씨(安東權氏)만이 갖는 우월성을 가진 조정신적 보물이다.

해외(海外)에 반출된 우리 문화재는 인진왜란(壬辰倭亂)과 일제강점기(日帝強占期) 동안 일본으로 건너간 10만여 점이 가장 많고 미국(美國)은 숫자적으로는 많지 않지만 미군정청이 주둔한 이후부터 수준급 문화재가 많이 건너갔다. 현재 전 세계 20개국에서 16만 점이 흩어져 있다.

미국(美國)으로 건너간 우리 문화재의 반환은 일본(日本)보다 수월하다. 실제로 이미 반환된 문화재가 있는 반면 일본(日本)은 오구라 컬렉션의 1,100여 점을 비롯 범룡사(法隆寺)같은 사찰, 정왕원(正倉院) 등에 무더기로 소장된 것이 확인되었지만 개인 재산이라는 이유를 내세워서 반환 결과가 미미하다. 반면 지금처럼 한미(韓美)관계가 좋은 시기를 잘 이용하면 의외로 좋은 결과가 나올 수 있다.

현재 유네스코의 문화재 반환 활동은 ① 무력 충돌 시 문화재 보호에 관한 헤이그협약(1954)을 두고 있으며 ② 문화재의 불법 반출 및 소유권 양도와 금지 예방에 관한 협약(1970) ③ 도난 또는 불법 반출된 문화재의 반환 협약(1995)까지 두고 있다. “문화재는 물질적 가치를 넘어 공동체의 역사 및 정체성의 상징”이다.

현조(賢祖) 문집 봉람(奉覽) <23>



권갑현 편집위원장

〈대은문집〉은 대은(臺隱) 권경(權璟, 1604~1666) 공의 시문(詩文)과 타인이 지은 공의 장갑문(狀稿文) 등을 모은 2권(二卷) 단책(單冊)의 목판본(木板本)이다.

공은 안동권씨 시조 태사공의 23세손으로 부정공파(副正公派)이다. 자(字)는 경옥(景玉)이다. 자호(自號)는 대은(臺隱)인데, 이는 관어(觀魚臺) 곁에 집을 짓고 살았기 때문이다. 부친은 증사복시정(贈司僕寺正) 권의협(權宜愜, 1579~1644)이고 모친은 증숙인(贈淑人) 영덕김씨(盈德金氏)로 김하(金河)의 따님이다.

공은 일찍이 하담(荷潭) 김시양(金時讓, 1581~1643)에게 학문을 익혀 학덕이 날로 성취하여 사람들이 많이 따랐다고 한다.

공은 품성이 지극히 효성스러워서 부모를 섬길 적에 언제나 온화한 표정으로 받들고 순종하여 부모를 기쁘게 해 드렸고, 모친이 세상을 떠났을 때는 매일 죽단 마시면서 상복을 잠시도 벗지 않았다.

공은 부모님 장례를 치른 뒤 매일 묘소를 찾아 울부짖으며 곡을 하면서 비바람이 친다는 이유로 그만두는 법이 없었고, 3년을 마치도록 이를 드러내 보이지 않았다. 조상의 제사를 받을 때는 목욕재계로 정결함을 다하면서 털갈만큼도 마음에 부족하게 여기는 부분이 없게 하였다.

또한 공은 친족들을 도맡게 대하였고, 남의 위급한 상황을 보면 반드시 도와주었으며, 남을 가르칠 때 행실을 우선으로 하고 기예(技藝)는 나중으로 삼았다. 비록 조그만 장점이 있더라도 반드시 그를 위하여 칭찬하고 추켜올려 주면서 성취해 가는 모습을 기쁜 마음으로 지켜보았다.

이로써 공은 효성이 지극하고 조상을 잘 섬기며 친족을 사랑하고 남을 배려하였음을 알 수 있겠다.

공은 사후 45년이 지나 1711년에 사헌부지평(司憲府持平)에 추증(追贈)되었다. 뒤에 영덕군 축산면 도곡동의 도계정사(陶溪精舍)에 배향(配享)되었으며 이때의 봉안문(奉安文)과 상향축문(常享祝文)은 지수(簾叟) 정규양(鄭葵陽, 1667~1732)이 지었다.

공의 행장은 정규양이 짓고, 묘갈명은 추암(攄庵) 김하구(金夏九, 1676~1762)가 지었으며, 또 변암 체제공이 지었다. 묘지(墓誌)는 재종질(再從姪) 권상길(權尙吉)이 짓고 가정(家狀)은 둘째아들 권득여(權得興, 1636~1716)가 지었다.

〈대은문집〉은 1954년 공의 8세손 권영운(權永允)과 9세손 권상묵(權相默)에 의하여 간행되었다. 권상묵(權相默)이 1954년 음력 2월 4일에 쓴 발문(跋文)에 의하면, “공의 초고(草稿)는 공의 둘째아들 송천자(松川子) 권득여가 모아 기록하였다. 그 뒤 공의 손자 절우정(七友亭) 권대립(權大臨, 1659~1723)이 유사(遺事)를 지어 초고와 함께 종가(宗家)에 보관하였다. 그 뒤 여러 번 화재를 만나 초고가 겨우 10분의 1 정도 남아 있었는데 공의 5세손 해은(海隱) 권전(權焄, 1736~1808)이 베껴 써서 온전하지 못하나 합하여 한 책(冊)으로 만들어 상자에 넣어두었다. 경인년(庚寅年, 1950) 가을에 재물(財物)을 모아 송천자와 절우정 두 세대의 유고(遺稿)를 합하여 간행할 때 족속(族叔) 권영호(權永鎬)씨가 예순의 나이에 손수 정사(淨寫)하고 몇 분의 학자에게 교감(校勘)을 받았다. 이에 각수(劄手)에게 맡겨 5년에 걸쳐 일을 마쳤다”고 하였다.

〈대은문집〉의 권두에는 이재(頤齋) 권연하(權連夏, 1813~1896)의 서문이 실려 있다. 제1권에는 시(詩) 87제 101수, 서(書) 4편, 잡저(雜著) 4편, 잠(箴) 6편, 제문(祭文) 4편 및 묘지(墓誌) 1편이 실려 있다. 제2권은 부록으로 행장 1편, 묘갈명 2편, 묘지 1편, 제문 3편, 그리고 가정(家狀), 가정보유(家狀補遺), 개제고유문(改題告由文), 분황(焚黃)고유문, 도계정사봉안문(陶溪精舍奉安文), 상향축문(常享祝文), 추증사적(追贈事蹟), 만송당기(晩松堂記)가 각 1편씩 실려 있다. 책 끝에는 용산(龍山) 이만인(李晩寅, 1834~1897)의 발문과, 공의 후손 권영운(權永允)과 권상묵(權相默)의 발문이 있다.

제1권의 〈무자기잡(毋自欺錄)〉은 자신을 속이지 말 것을 재삼 강조한 것이고, 〈면학잡(勉學箴)〉에서는 타성(惰性)을 버리고 학문에 힘을 것을 주장하였으며, 〈극기잡(克己箴)〉은 성(誠)과 경(敬)으로 자신을 다스려 나갈 것을 강조한 것이고, 〈제가잡(齊家箴)〉에서는 자신이 아들과 며느리의 입장이 되어 아비

대은문집(臺隱文集)

지와 시아버지 노릇을 해야 한다고 말하였다. 또 〈목족잡(睦族箴)〉과 〈거린잡(居鄰箴)〉에서는 형제와 친족의 우의와 이웃 간에 서로 돕고 조심해야 할 일들에 대하여 자세히 밝혔다. 제2권 부록에 있는 〈만송당기(晩松堂記)〉는 이계(伊溪) 남몽뢰(南夢賚, 1620~1681)가 1659년 2월에 지은 것이다. 만송당은 대은공이 평소 장수유식(藏修遊息)하던 곳이며, 이 기문은 생전에 이계(伊溪)에게 편지로서 부탁하여 받은 것이다.

다음은 공이 만송당에 대해 읊은 칠언절구 두 수이다. 첫 번째 시는 소나무에 대해 읊었고, 두 번째는 만송당에 소나무와 함께 있는 대나무와 매화나무에 대해 노래한 것이다. 이들 송죽매(松竹梅)는 모두 절의(節義)를 상징하는 나무들이다.

晩松堂(만송당) 二首(이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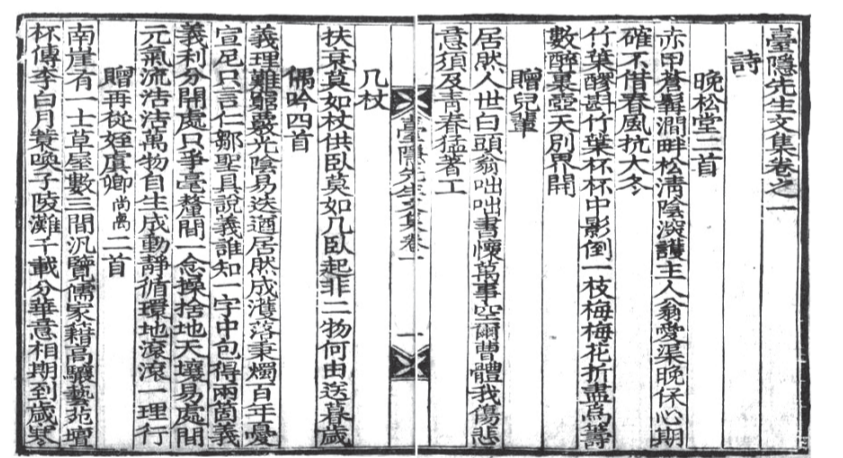
赤甲蒼髯潤畔松(적갑창연윤반송)
붉은 갑옷에 푸른 수염 산골 물가 소나무가
淸陰深護主人翁(청음심호주인옹)
질고 서늘한 그늘이 주인옹을 보호하고 있네
愛巢晚保心期臘(애거만보심기략)
그가 늦도록 심경을 굳게 보존함을 사랑하니
不借春風抗大冬(불차춘풍항대동)
봄바람 빌리지 않아도 한겨울 버텨내고 있네

竹葉醪斟竹葉杯(죽엽료짐죽엽배)
대나무 잎 막걸리를 대나무 잎 잔에 따르니
杯中影倒一枝梅(배중영도일지매)
잔 속에 매화가 기울자 그림자 하나가 박혀있네
梅花折盡爲籌數(매화절진위주수)
매화꽃 죄다 꺾어서 산가지 만들어 세어보니
醉裏盡天別界開(취리호천별계개)
취한 가운데 별 안의 하늘에 별세계 열렸네

다음은 제1권의 〈면학잡(勉學箴)〉처럼 공이 아들들에게 젊어서부터 공부에 힘쓰기를 당부하는 내용을 읊은 것이다.

贈兒輩(증아배) 아이들에게 주다

居然人世白頭翁(거연인세백두옹)
어느덧 인간 세상에서 흰머리 노인 되었으니
咄嗚書懷萬事空(돌머서회만사공)
머리를 차며 회포를 적어도 만사가 헛되이네
爾曹體我傷悲意(이조체아상비의)
너희들은 내가 마음 아파하는 뜻을 인식하여
須及青春猛著工(수급청춘맹저공)
반드시 청춘일 때 단단히 공부에 힘써야하리



입암서원(立巖書院) 향사 봉행

포항시 죽장면에 소재한 입암서원(立巖書院, 운영위원장 권태재) 향사(享祀)가 3월 20일 초헌관 정종섭(鄭宗燮, 전 행정자치부장관), 아헌관 손병태(孫秉泰), 종헌관 장세웅(張世龍), 집례 권갑현(權甲鉉, 종보편집위원장), 축 박용섭(朴鏞燮) 등으로 분정하고 참제관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엄숙하게 봉행되었다. 이 중 장세웅(張世龍) 종헌관은 1637년 임진왜란을 역임하였고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1554~1637) 선생의 후손이다. 입암서원은 문강공(文康公) 여헌(旅軒) 장현광(張顯光) 선생을 주향으로 모시고 있으며, 입암사우(立巖四友)로 불리는 동봉(東峯) 권극립(權克立), 수암(守菴) 정사진(鄭四震), 윤암(倫庵) 손우남(孫宇男), 우헌(愚軒) 정사상(鄭四象) 선생을 배향하고 있다.

향사에 앞서 정종섭 전 장관이 직접 쓴 상현사(尙賢祠) 사당 편액 및 입암정사(立巖精舍) 편액을 걸고 고유하였다. 고유문은 권기갑(權奇甲) 대중회 부회장이 찬하였다. 고유에는 권태재 서원운영위원장이 헌관으로서 헌작하였다.

입암서원 사당 편액 고유문

(立巖書院祠號揭板告由文 입암서원사호계판고유문)五位師弟(오위사제) 승과와 제자 이렇게 다섯 분이 祖述魯風(조술노풍) 공자의 유품을 본받으셨습니다 香壇所處(향단소처) 학문을 연마하셨던 바로 이곳에 既有明宮(기유명궁) 이미 사우 건물이 있었습니까 授受鎔鑄(수수관합) 핵심 학문을 주고받으셨으니 聖訓所工(성훈소공) 공자의 가르침을 공부하셨습니다 致遠之道(치원지도) 도학을 깊이 터득하는 방법은 慎信和融(신신화용) 삼감과 믿음과 융화였습니다

所宗之學(소종지학) 으뜸으로 삼으신 학문은 精一執中(정일집중) 정일 집중의 경이었습니다 繩武鹿洞(승무목동) 백록동서원의 본 뜻을 계승했고 矜式吾東(금식오동) 우리 동방의 모범입니다 奠幣禮數(전폐례수) 폐백 올리는 제향의식은 他無異同(타무이동) 다른 서원과 같았습니다 院名已久(원명이구) 서원명칭이 오래되었는데 祠號尙闕(사호상결) 사우의 칭호는 아직 없었습니다 仰慕山斗(양모산두) 태산과 북두처럼 우러러 사모함에 慙罪莫竭(참죄막갈) 죄스러움을 어찌 다하겠습니까 精舍無扁(정사무편) 정사에는 편액이 없었으니 若無車軌(약무거궤) 끝채 없는 수레와 같았습니다 今春儒會(금춘유회) 이번 봄에 유림의 모임에서 衆悔謀沒(중회모몰) 모두들 생각이 부족했음을 뉘우치고 敢論擬撰(감론의작) 준칙을 의논하니 모범에 비하리우마는 尙賢論發(상현논발) 상현으로 하자고 논의되었습니다 名實契合(명실계합) 이름이 현실과 딱 맞는 것 같으니 詎曰補削(거왓보월) 어찌 완벽하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以是釐定(이시리정) 이것으로 정리하고 제정하여 謹題謹副(근제근필) 삼가 글씨를 써서 새겼습니다 兩版揭擱(양판게끼) 두 현판을 문미에 게시하고 祠宇對越(사우대월) 사우의 모습을 우러러 바라보니 彩增山川(채증산천) 산천은 더욱 곱게 비치고 輝煌日月(휘황일월) 해와 달은 더욱 찬란하게 빛납니다 因以涓吉(인이연길) 이에 춘계 향례일을 맞아 敢告由厥(감고유궤) 감히 그 사유를 고하옵니

권갑현 편집위원장



입암서원



입암정사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계묘년 시산제



만물이 소생하는 춘삼월 춘분을 이틀 앞둔 3월 19일 안양시 동편마을 앞 관악산 끝자락에서 권영복 회장 등 회원 4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안동권씨 서울산악회 계묘년(癸卯年) 시산제(始山祭)가 권순취 총무국장의 사회로 제례 식순에 따라 엄숙하고 경건한 마음으로 봉행되었다.

회원들은 이날 오전 10시 4호선 인덕원역 8번 출구에서 만나 정담을 나누어 가면서 산에 올라 안전한 산행과 서로의 건강을 기원하며 시산제를 지냈다. 곧바로 하산하여 맛집으로 소문난 가도 식당에서 넓은 흙을 통째로 차지하여 해물찌개 해물탕으로 문경에서 배송해온 오미자 막걸리와 소주, 제물로 올린 떡과 과일로 즐겁게 식사를 마쳤다.

다음달 4월에는 청장년 전국 체육대회가 경제의 도시 울산에서 개최되는바 회원 전원이 건강한 마음으로 같이 참여하기를 약속하고 권영복 회장이 준비한 양말과 회장의 조카 권경훈씨가 마련한 티셔츠 선물로 받고 4시경 모든 행사를 끝마쳤다. 권영복 서울산악회 회장